지난여름

은희경

소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자리에 만나 한동안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며 일정한 규칙 안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 것. 나에게 그것은 두 가지 경험을 떠오르게 한다. 병원 입원과 패키지여행이다. 지난여름 지구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달아올랐고 무기력과 짜증 섞인 권태 속에서 나는 그 두 가지를 치러냈다. 지금은 가을이다. 햇빛은 부드러우며 살갗에 닿는 공기는 서늘하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의 일을 겪기 전, 그러니까 지난봄의 시간들이 어쩐지 오래 전의 한 시절처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른 아침이면 혼자 동네의 공원을 걷는다. 아내는 나를 위해 두유 메이커에 콩과 견과류를 넣은 다음 스위치를 켜놓고 출근했을 것이다. 30년 넘게 함께 사는 동안 아내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식탁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부산하게 아침 시간을 보냈다. 얼마 전부터는 내가 아내보다 먼저 눈을 뜬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으면 잠에서 깬 아내가 내 쪽으로 돌아누우며 "잘 잤어?" 라고 말을 건넨다. 병원에서 나를 간병할 때 아침마다 소변통의 눈금 숫자를 기록하면서 건네던 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두유 한잔으로 대신하면서부터 아내는 더 이상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내게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아내는 꿈을 많이 꾼다. 직장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특히 악몽을 꾸곤 하는데, 탈출하려고 숨겨둔 우주선의 위치를 잊어버려 고생했다거나 사투리를 쓰는 앵무새가 길을 틀리게 알려주어 헤맸다거나 하는 식으로 전개가 황당해서 듣고 있자면 웃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이따금 아내의 꿈에는 죽은 아내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막 잠에서 깨어서인지 내용도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내가 추계

연수회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너무 긴장했던지 갑자기 생리가 시작된 거야. 팬티가 젖어서 나 얼마 전에 산 베이지색 스커트 있잖아, 그걸 입었는데 피가 배어나온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려고 집으로 막 달려갔거든. 찻길을 건너고 언덕을 오르고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고, 그 와중에도 다리 사이로는 물컹한 게 빠져나가는 느낌인 데다 아랫도리가 온통 축축하고. 근데 그렇게 온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집에 가봤자 엄마가 없다는 걸. 엄마는 죽었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을 한 뒤 아내는 잠시 침묵한다. 아침 산책을 준비하기 위해 침대에서 먼저 몸을 일으키며 나는 생각한다. 죽음은 그런 것이겠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는 것.

그 꿈에서 아내의 어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꿈에서는 아내와 놀이공원에 가거나 백화점에 간다. 꿈속에서 아내의 어머니는 늘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고 한다. 환갑이 가까운 아내가 젊은 여인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함께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장면을 상상하면 평평한 시간의 띠를 역방향으로 접어보는 느낌이 든다. 시간은 기억에 의해 다시 해석되고 꿈에 의해 재편집할 수 있다. 입원과 패키지여행이라는 두 개의 단체생활을 겪은 뒤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정을 공유해도 우리는 각기 살아온 그대로의 시간을 산다. 그리고 시간은 철저하게 각자의 궤도로 흐른다.

먼저 입원 이야기를 해보겠다. 수술 날짜를 잡으며 담당의는 내 몸 속의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수술로 제거한 뒤 조직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와 아내는 악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종합검진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라는 수순을 밟았을 뿐 건강이 나빠지는 어떤 조짐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술 전날 입원해서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에도 나와 아내의 관심은 절제할 부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입원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에 쏠려 있었다. 입원이 길어지면 간병을 하는 아내의 연차도 길어져야 해서였다. 인턴이 와서 아랫배 왼쪽의 수술부위를 펜으로 표시하고 관장을 할 때는 조금 긴장이 되었지만 겁이 날 정도는 아니었다.

내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뒤 아내는 그 앞의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은 오전 9시 20분이었다. 원내 휴게실에서 사온 달걀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으며 아내는 같은 의자에 앉은 채 나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수술이 종료되어 환자가 회복실에 있다는 문자는 오후 2시 30분에 왔다. 의사가 알려준 예상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나 있었다. 그것은 전날 밤 아내가 서명을 하려다 순간 멈칫했던 수술동의서의 문구를 근거로 나쁜 상상을 떠올리는 한편, 그 상상이 결코 현실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삶의 관성에 대한 막연한 믿음, 그럼에도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는 변화의 전조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호흡 보조기와 네블라이저와 산소포화도 체크 기계를 매단 채 병실로 돌아왔다. 지혈제와 거담제, 수혈 팩, 그리고 통증조절주사스티커가 붙은 주사액까지 4개의 링거를 달고 있었고, 허리 양쪽으로는 소변 주머니와 붉은 액체가 담긴 수술 오수 주머니를 찼다. 다리에는 혈액순환을 위한 공기압 스타킹을 신고 복대도 차고 있었다. 그렇게 매달고 있는 갖가지 장치의 도움 없이 스스로는 아무런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채로, 의사가 몇 시간에 걸쳐 내장 깊숙이 내놓은 칼자국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가 바로 죽음이었다.

그러나 내 몸 또한 그만큼 필사적이었던지 4일째에는 금식 팻말을 떼고 미음을 먹기 시작했으며 침대에 매단 보조 끈을 붙잡고 혼자 일어나 앉을 수도 있게 되었다. 몸에 매달고 있던 것들도 하나씩 줄어들었다.

다음날은 오후 늦게 의사가 회진을 왔다. 조직검사 결과가 적힌 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내 몸 속의 종양이 악성 신생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악성은 보험혜택을 받게 되므로 증명서를 원무과에 접수하라고 좋은 소식이라도 되는 듯이 덧붙였다. 의사가 나가고 난 뒤 바로 저녁시간이 되어 식판을 건네받았지만 나는 입맛이 돌지 않았다. 아내가 병원 밖의 식당에 나가 내가 평소 좋아하는 추어탕을 사왔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이내 숟가락을 놓아버리는 내게 아내는 그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며 단지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불현듯 몸이 나른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진 나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웠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달라지는 건 조금밖에 없었다. 몇 가지의 아주 오래된 습관을 바꿔야 하겠지만 나는 살아온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 몇 가지가 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알아가게 될 테고,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나의 다음 단계의 삶이 될 것이다.

4인 병실에서 내 자리는 오른쪽 창가 쪽이었다. 연령대가 비슷한 환자들끼리 방을 배정하는지 나머지 세 명의 환자들은 70대와 80대였고 60대 후반인 내가 가장 젊었다.

얇은 커튼 한 겹으로 가려진 옆 병상의 노인은 하루에 몇 차례씩 집중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걷지 못할 뿐 다른 질병은 없는 그 노인은 종일 갑갑함을 못 견뎌했다. 누운 채로 흘러간 트로트를 목청껏 부르거나, 병실 문밖에 놓인 보조 기구를 붙잡고 낑낑대며 걸음을 내딛는 연습을 했다. 나머지 시간은 간병인과 큰 소리로 다투었다. 간병인은 병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재중동포 중에서도 억양이 드센데다가 생활력 강한 30대 여성의 활기에 더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라, 혼자 나가 돌아다니지 말아라, 말 좀 들어먹어라'가 간병인이 소리를 지르는 레퍼토리였다면 노인은 '네가 늘 자리를 비우기 때문이다, 너는 네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항변으로 고함을 치며 맞받았다.

그들이 연대하는 순간은 노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였다. 간병인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고자질을 하듯 노인을 간병하는 고충을 하나하나 토로한 다음 노인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었는데 그때마다 노인 역시 트로트를 부르고 간병인과 싸울 때의 기세는 간 곳 없는 애잔한 태도로 자신이 병실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혼자서 걸을 수도 있으니 그만 내보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였다. 전화기의 볼륨이 한껏 키워져 있는 탓에 노인의 아내가 대꾸하는 말이 나에게까지 들렸다. "잔말 말고 운동이나 잘 해. 간병인 말 잘 듣고." 노인의 아내는 언제 면회 오냐는 노인의 물음에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진 뒤 노인의 입에서는 뒤집어진 권력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의 불만과 욕설이 새어나오곤 했다.

맞은편 병상의 80대 노인은 입원부터가 요란했다. 보호자인 50대의 아들에게 이곳이 환자들의 공간이란 것은 물론, 자신들이 그 중 4분의 1의 지분밖에 없다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세상의 중심은 자신의 가족뿐이라는 듯한 태도였고 명품 셔츠와 단정적인 말투를 통해 자기가 속한 계급을 맘껏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목청을 높이는 내용은 두 가지였다. 입원을 거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 여러 경로를 거쳐 물색한 간병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 그는 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인지능력이 손상된 것을 본인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연신 질문을 던져댔고 거기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근거로 입원의 타당성을 주장하려 했지만 노인의 거부는 완강했다.

그들의 대화 아닌 대화는 이십분 넘게 이어졌고 가까스로 노인이 그날 하루만 병원에서 지내겠다는 데까지만 허락한 사이 약속된 간병인이 왔다. 역시 재중동포였지만 트로트 노인의 간병인과 달리 체격이 왜소한 60대 여성이었다. 그 간병인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노인을 침대에 눕힐 수 있었고 노인이 기저귀 차기를 거부하자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데려갈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그 간병인은 곧바로 다음날 젊은 간병인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의 둘째아들이 새 간병인을 데려와서 또다시 퇴원을 주장하는 아버지를 30분 가까이 설득한 뒤 형에게 전화를 걸어 '형도 못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이겨'라고 소리친 뒤 돌아갔다. 두 아들은 다시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노인은 고집을 행사할 기회가 더 이상 없었으므로 하루하루 병실 생활에 적응해 갔다. 담당의사가 와서 단어를 따라 말해 보라거나 산수 문제를 낼 때면 '내가 그 시골 학교에서도 산수를 백점만 맞던 사람이야'라고 역정을 내는 게 고작이었다.

대각선 쪽 병상만이 조용했다. 언제나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환자가 전신을 움직이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남자 간병인이 있었다. 식사시간에도 환자에게 밥을 떠먹이며 간간이 말을 거는 남자 간병인의 목소리가 커튼을 통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들이 퇴원하는 날에야 목까지 이불을 덮은 노인 환자의 모습과 남자 간병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잠시 입원했을 뿐 그 전에 있던 요양병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남자 간병인은 자신이 2년을 성심껏 간호해서 그나마 사람을 알아보고 소리로나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한 다음 그렇게 살려놓으니 죽고 싶다는 말만 한다고 불만스럽게 내뱉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는 공동생활에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 트로트 노인과 산수 백 점 노인 똑같이 내게는 짜증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매일 나의 환자복과 침대시트를 갈아주고 소변량과 식사량과 음수량을 중간 합계까지 내가며 착실하게 기록하는가 하면 그 병실에서 가장 젊은 환자이니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면도를 해주고 건식 샴푸까지 사오며 간병을 하는 아내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깊은 밤과 새벽, 간호사가 체온과 혈압을 재러 오면 아내는 어김없이 간이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나의 체온을 묻곤 했다. 나는 자주 열이 올랐고 체온이 높으면 얼음찜질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나는 오히려 밤에 잠을 이루기가 더 어려웠다. 통증 사이사이 불쑥 얼굴을 덮어 누르던 혼절한 듯한 잠도 찾아오지 않았다. 언제나 블라인드가 올려져 있는 병실 창밖의 희미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무렵 깨달았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트로트 노인이나 산수 백 점 노인이 아니라 그들과의 동행이란 것을.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투병과 쇠약한 스러짐의 여정이란 것을. 퇴원하던 날 아내는 노인 환자 둘과 간병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감사했습니다. 저희 먼저 나가요." 이미 병실 밖으로 한 걸음 내딛었던 나는 아내가 팔을 잡아끌어서야 내가 도망치듯 걸음을 빨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입원에 비하면 패키지여행은 일정도 짧고 또 수술처럼 심각한 사안이 동반되지 않는 여가활동이어서 할 이야기가 많지는 않다. 수술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염려가 되긴 했다. 다행히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뿐 여행을 만류하지는 않았다. 왜 이런 시기에 굳이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는지 묻는다면 아마 나는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동창 다섯 명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해온 데다, 나를 빼고는 각기 현업에 있는 터라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미루고 미룬 끝에 가까스로 결정한 여행이었다. 내가 빠진다고 하면 무산될 게 뻔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만도 미안한데, 규정상 미리 지급한 여행비를 20퍼센트밖에 돌려받지 못하므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칠 상황이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여행가방을 꾸리며 이렇게 당부했다. "당신이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란 것만 안 잊으면 돼."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예전의 그 사람은 누구였지? 입원하기 전의 일들이 오래 전의 한 시절 같다고, 그러니까 지난봄의 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행은 모두 21명이었다. 큰형의 팔순 기념 여행을 왔다는 부부동반 삼형제 팀이 가장 나이

가 많았고 직장동료라는 세 명의 30대 여성들이 가장 젊었다. 세 명의 딸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맨 뒤에서 한 몸처럼 조용히 붙어 다니는 모녀 팀도 있었다. 나머지는 부부로 보이는 남녀 커플, 그리고 우리 일행 다섯 명이었다. 여행객들은 3박 4일 동안 서로 일정한 거리를 지키며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시간 단위로 움직였지만 분명 각기 다른 방식의 여행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행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행선지나 여정보다는 동행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목적이나 취향이나 컨디션이나 역할분담이나 상호관계, 다른 팀과의 견제나 경쟁심이나 우월감이나 손해 보지 않으려는 주관적 기준의 공정함. 그 어떤 것이든 사소한 감정과 권력의 기류 변화에 작용점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조금이지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일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시간이 많았던 것이다. 호텔 조식을 먹고 집합하는 오전 8시반에서 부터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시 호텔 앞에 부려지는 저녁 7시까지는 개인의 선택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친구들이 일본 술을 마시러 나간 밤 시간에 나는 퇴원 환자라는 걸 구실로 혼자 남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았던 건 그들이 숙취로 곯아떨어진 이른 아침에 혼자 나가는 산책이었다. 그 여행에서 좋았던 것은 그 시간뿐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특별한 일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는 데에만 의미를 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그날은 호텔 앞에서 버스에 탑승해 공항으로 향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일정도 없었다. 나는 지도앱을 열어 동선을 정한 다음 산책에 나섰다. 시간 여유도 있고 또 마지막 날인만큼 좀 오래 걸어볼 생각이었다. 전날 아침에 걸었던 천변 길을 따라 걷다가 그 안쪽에 있는 공원으로 들어갔다. 공원을 가로질러 벗어나니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오래된 동네가 나타났다. 낡은 나무 문짝과 녹슨 함석지붕과 울퉁불퉁한 벽들, 조그만 창문 아래 기대어진 허름한 자전거. 나에게 어쩐지 낯이 익은 골목 풍경이었다. 금방이라도 그 빛바랜 나무 문짝을 열고 중학교 교복을 입은 내가 나와서 자전거 짐받이에 회색 책가방을 묶을 것만 같았다.

나는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가며 이어지는 골목 안을 계속해서 걸었다. 어느 집의 우편함에는 신문이 꽂혀 있었고 어느 담장을 지나칠 때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땀을 흘리며 나는 계속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췄는데, 빈 화분과 썩어가는 나무판자와 대나무 발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쌓인 위에 붙어 있는 커다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일본어 문장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여섯 개의 한자뿐이었다. 천, 국, 근, 죄, 회, 개.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뜻이 분명했다. 그것은 내가 지나쳐온 풍경과 마찬가지로 눈에 익은 문구였다.

그 순간 불현듯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고 집합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았다. 내가 지각한다면 최악의 경우 20명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골목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이다. 나는 낯선 나라의 아침의 정적을 깨는 발소리를 내며 골목 안을 뛰기 시작했다. 내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온몸이 땀에 젖었고 숨이 가쁜 나머지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곳은 더 이상 오래 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며 낯선 여행지의 처음 보는 장소일 뿐이었다. 나를 두렵게 만든 것은 왜곡된 시간이었다. 나는 평면으로 이어지다가 한순간 모양을 갖추고 일어나 꼬여버린 시간의 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다음 순간 내가 누군가의 꿈속에서 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니, 나를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내가 병실에서 달았던 온갖 보조기구를 매단 채 다음 단계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같았다.

여행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내는 말했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다 잘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 그 스트레스일 거야."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왔다. 타의에 의해 일을 그만둔 뒤로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귀찮았다. 그런 나에게 짧은 시간동안 그렇게 많은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있게 된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이라는 시간의 초보자인 한 새로움은 언제나 생겨난다. 아내의 말대로 다른 삶이 시작되었지만, 오래 전에 시작된 나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흘러가리라는 것만으로도 그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끝>